

# IMF 관리체제 이전 · 이후의 가계소비수준 회복정도와 영향변인 - 주부의 주관적 인지도를 중심으로 -

The Recovery degree of Household Consumption level after-before  
IMF and it's influencing variables  
- Focusing on Housewives' subjective perception -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 교수 두경자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 Myung Univ.  
Associate Prof. : Kyung ja, Doo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wives' subjective perception about recovery degree of household consumption level after-before IMF and it's influencing variables.

The data used were obtained from 250wives in Seoul.

Statistics perform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y, Percentile, Means,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household consumption level after IMF was lower than before IMF. household-wives had little perception of recovery for economics. Second, the difference of household consumption level after-before IMF was affected by income, income-change. The higher income and income-change were, the higher difference of consumption level after-before IMF was. Third, the consumption level after IMF was affected by age, income, assets. The higher age, income and assets were, the higher consumption level after IMF was.

## I. 서론

가정소비는 가정의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이며 소비의 단계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획득과정, 가정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과정, 소비되고 남은 것을 처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Magrabi : 1991). 인간은 스스로를 유지 또는 발전시키기 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하며 다음의 생산과정에서 발휘할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소비한다. 소비활동이 중단된다면 그 국민경제는 스스로를 재생산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 것이므로 소비는 모든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종착지가 된다(조순 : 1981). 특히 가계소비경향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국가경제의 소비활동 중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66.6%가 최종소비지출이었으며 이 중 82.0%를 가계소비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1998)

IMF구제금융 체제하의 한국경제는 물가상승, 금융제도의 다각적인 개편과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전체적인 국가경제는 물론 가계의 소비도 크게 위축되어왔다. 특히 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부도와 기업체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 정리해고, 취업난 등의 사회적 현상은 가계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은 가정의 소비수준과 경제생활의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고있다(신한리뷰, 1998).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며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다(매일경제 1999, 4, 28). 이러한 현상은 내수의 활성화가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 소비는 거품 소비형태를 띄우며 (매일경제 1999, 5, 6) IMF이전에 경험했던 과소비 내지 전시효과 소비수준을 유지하려는 튼니효과 현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문제를 내포한다고 하겠다. 중산층 3명 중 1명이 IMF 이후에 하류층으로 전락했다(매일경제 1999, 4, 13)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직과 소득감소로 경제회복의 태동을 감지하지도 못하는 가정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매일경제 1999, 5, 2)는 점을 고려할 때 거품소비는

제한된 소수 소비자들의 연기되었던 구매분출행동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실생활 경제의 가장 민감한 위치에 있는 가계소비자인 주부들의 경기회복에 관한 인식을 이해함은 앞으로의 내수경기전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IMF관리체제이후 처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회복이 과연 각 가계에까지 파급된 긍정적인 변화인지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주부가 인지한 IMF 이전, 이후의 가계 소비수준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비수준 차이의 영향변인과 IMF이후의 가계 소비수준의 영향변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소비수준

소비는 재화 및 용역의 처분행위이며(조순, 1981) 가정에 의해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재화와 용역의 획득과정, 가정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과정, 소비되고 남은 것을 처분하는 3단계의 과정이 있다(Magrabi; 1991). 소비수준은 가정에서 실제로 경험하거나 사용된 재화와 용역의 집합으로서(Davis; 1945) 생활수준을 비교·측정할 때 사용되는 지표의 하나로 실질소비량을 의미한다(국어대사전 ; 1995). 양세정(1991)은 비목별 소비수준은 가계의 비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가계의 소비수준이란 각 가정에서 실제로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소비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소비수준은 도시가계연보를 기초로 한 지출비목별 측정이 가능하다. 지출비목은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비, 교육비, 광열비, 보건위생비, 교양 오락비, 교통통신비, 잡비 등이며 측정방법은 지불된 화폐를 근거로 산출하는 방법(도시가계연보)과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소비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가 주관적으로 인지한 소비수준을 측정하였다.

## 2. 소비지출과 제 관련변인

가계소비지출은 개별가계의 생활의 질과 소비형태 및 가계의 복지수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계의 소비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계의 소비수준 관련변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계소비지출은 연령, 학력, 주부의 직업유무, 남편의 직업, 가족 수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Fan, Stafford(1994)는 지출구성비의 특성에 따라 소비지출유형을 분석한 연구에서 인종, 연령, 편모가구 여부, 교육수준, 가구주 나이, 주부의 취업여부, 취업자 수, 가구주 연령대별 인원수, 주거지역 도시화 정도, 조사연도 등 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한 변수임을 밝혔다(황덕순, 정운영, 1998).

주인숙, 양세정(1997)연구에서는 가계 비목별 지출구성비를 근거로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가계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나이, 주거상태등이 높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숙(1983)은 가구주의 연령별로 가계지출을 분석하고 월 소비지출액과 주부의 연령이 관계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의복비 지출이 높고(김영숙, 왕인숙, 1989)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총 소비지출, 식료품비와 기타 소비지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김영숙, 1990). 주부의 취업여부와 소비지출간의 관계를 보면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 가계에 비해 의식비에 더 많이 지출한다는 연구결과(Foster, 1988; Bellante & Fister, 1984)와 의식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Geobel & Hennon, 1982)가 있다. 양세정(1977, 1998)의 연구에서는 전업주부가계보다 취업주부가계가 식비, 의식비, 피복, 신발비, 교양오락비, 공공교통비, 이·미용비, 장신구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주부가계는 전 지출비목에 걸쳐 전업주부가계보다 지출규모가 더 크다고 하였고(양세정, 1998), Strober (1977)도 취업주부가계의 총 소비지출 수준이 전

업주부가계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다.

남편의 직업은 분류기준이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그 경향을 나타낼 수는 없으나 김영숙, 왕인숙(1989)은 남편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가 노동자인 경우보다 의복비 지출이 높다고 하였고 류재술(1992)은 남편의 직업이 봉급자인 가구가 노무자인 가구보다 교육과 교양, 오락비 등에서 소비지출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최은숙(1986)은 가계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가족 수는 소득 다음으로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며, 식료품비, 피복비, 주거비, 교통비의 변동이 가족 수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기욱·이승신(1990)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경제적 특성 중 가족수가 총 소비지출액, 비목별 소비지출액, 비목별 지출 백분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경제환경적 변인

가계소비지출은 소득과 소득의 변화, 그 가계가 보유한 자산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조순(1981)은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계의 소득 재정상태, 경기에 대한 전망, 정부정책, 기호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계의 소비지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처분소득이라 하였다. 김봉애(1983), 강이주(1988), Mammen Whan(1987) 등의 연구에서도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소비수준과 소비지출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Goldsmith(1996) 또한 수입의 증감에 따라 가정의 소비생활이 변화한다고 하였다.

류재술(1992)은 “도시가계연보”의 1970~90년까지의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의 소비패턴을 분석한 결과 소득에 따라 소비지출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저소득계층인 노무자가구는 의식주생활과 관련한 일차적 소비지출 비목에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고소득 계층인 봉급자 가구는 자녀교육이나 정서함양과 관련한 2차적 소비지출비목에 많은 지출을 하였다. 이성민(1992)은 의식, 의의, 교양오락, 일반가구, 개인교통 등 선택적 소비지출은 가계소득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가구주가 고학력자 일수록 지출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지은·백은영(1998)은 도시주부의 월 평균 선택성 개인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취업여부, 과소비성향, 월 평균소득액과 부채유무라고 하여 소득이 지출에 관련된다고 보았고, 황덕순·정운영(1998)은 소비지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계 특성의 영향력은 집단에 상관없이 소득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Friedman(1957)은 소득을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나누고 임시소득은 저축에, 항상소득은 소비지출에 관련된다고 보았다.

양세정·유재은(1992)은 한국의 도시가계연보와 일본의 가계조사연보의 1975~1990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한·일간의 가계지출의 차이를 소득탄력성으로 설명하고 연도별 지출변동 현상은 소득의 변화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가계의 자산은 일정기간 소득의 일부가 축적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소유로 나타나므로(손주영·이연숙, 1999) 자가를 소유한 자산가계는 소유하지 못한 임차가계보다 소비규모가 현저히 높았다(황덕순·정운영, 1998). 특히 Lee와 Hanna(1995)는 65세 이상인 가계의 자산비율이 다른 일반가계보다 높다고 함으로써 연령이 높고 자산소유수준이 높은 가계가 낮은 연령층에 비해 소비지출이 높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 3. IMF체제와 가계의 소비지출

소비자보호원에서 연구된 IMF체제 전후의 소비자 의식 및 행태 비교(1998)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비지출을,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용 유지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70.5%가 IMF체제 이후 가정형편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1.3%는 IMF체제 영향으로 생활비를 줄이고 있으며 감소시킨 생활비는 잡비(57.3%), 외식비(45.8%), 식료품비(38.5%), 의류비(3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볼 때 여성은 식료품비와 의류비에서 남성은 잡비와 교제비에서 지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는 잡비와 교제비지출을, 30대는 외식비지출을, 40대는 교육비지출

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특히, IMF체제이후 자가용 이용 줄이기, 겨울철 실내온도 낮추기, 외식 횟수 줄이기, 술자리 줄이기, 경조사비 줄이기 등이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1998)은 IMF이후 가계 소비생활의 변화와 특징이란 연구에서 IMF사태 이후 수입이 감소한 가구는 76.5%였으며 100만원이하의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율이 고소득층의 소득감소율보다 높다(45.9%)고 하였다. 그러나 경조사비, 신문 잡지구독비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지출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으며 감소시키고자 하는 비목은 외식비, 의복구입비, 에너지비용, 문화레저비 등이고 감소시키기 어려운 비목은 식료품비, 경조사비, 저축, 자녀 과외비 등이라고 하였다. 박인숙 등(1999)은 IMF관리체제이후 의복구입 특히 정장류와 악세사리류가 감소하였고 외식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교통통신비, 광열비, 수도비, 보건의료비, 공공교육비 등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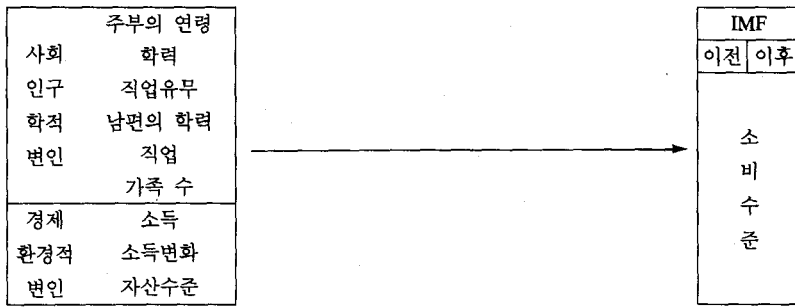
이상 선행연구들을 살펴 볼 때 IMF체제는 일찍이 우리 나라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적 위축기 내지 극도의 불안기이므로 IMF전후의 소비수준 차이 및 소비수준의 영향변인은 일반적인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를 것으로 추측된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가계 소비 지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부가 인지하고 있는 IMF 이전과 이후의 소비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하위 비목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 (2) IMF이전과 이후의 소비수준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 (3) IMF 이후의 가계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그림 1〉 소비수준에 관한 연구모형

2. 조사도구

1) 소비수준

경제학과 가정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가계 비목별 지출 비중을 연구할 때는 관련변인들을 일정하게 하고 가계의 생계비와 그 비목간의 크기 등을 종적, 횡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해 왔다. 따라서 도시가계연보 등의 지불된 화폐량을 근거로 소비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 비목간의 정확한 크기의 분석 보다는 총 생계비 가운데 비목별 지출 비중에 대해 주부가 인지한 주관적인 가계의 소비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소비수준의 측정도구는 뉴우턴(Newton, 1979)의 사다리식 만족감 측정도를 적용하여 맨 아래칸을 1, 맨 위칸을 5, 중간수준을 3으로 설정한 5

단계의 사다리를 만들어 맨 아래칸은 1점, 중간은 3점, 맨 위칸은 5점등 1~5점까지를 준 후 점수화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5단계의 소비수준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각각의 지출 비목에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기입방법은 우선 IMF이전의 소비수준을 비목별로 기입한 후 이와 비교하면서 IMF이후의 소비수준 비목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지출비목은 도시가계연보를 기초로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피복비, 광열비, 보건위생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잡비 등의 순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계지출 비목표는 다음과 같다.

2) 경제환경적 변인

경제환경적 변인의 측정도구는 소득, 소득변화, 자산수준 등이었다. 소득은 80만원 미만~400만원이상

〈표 1〉 가계의 지출 비목표

비 목	내 용
식료품비	주식, 부식, 외식, 간식
주거비	집세, 주택수리비, 관리비,
피복비	내의 혹은 양말, 외의(겉옷), 구두·가방·모자, 세탁비
교육비	공납금, 학용품, 자녀용돈, 레슨비(과외비)
광열비	전기·수도·연료(아파트의 경우 통합공과금)
보건위생비	세제, 의약품 구입비, 이·미용비, 목욕비
교양오락비	신문·잡지 구독료, 도서구입비, 교제비, 문화활동비(영화나 연극관람료)
교통통신비	공공·교통수단이용료, 자동차유지비 및 수리비, 우편, 전화요금
잡비	가장용돈, 동거가족 용돈(자녀이외), 관혼상제시의 부조금

까지 11등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소득변화는 크게 감소, 약간 감소, 무변화, 약간증가, 크게 증가 등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자산수준은 빚 있음, 빚 없음, 약간여유, 넉넉함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질문지 문항검토, 응답유형, 소비수준 회복정도의 측정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8년 9~10월에 걸쳐 제1차 조사(350부)를 실시한 결과 조사시점이 IMF 발생시기와 근접하여 소비수준회복정도를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일단 보류하고 1999년 4월 10일~24일에 걸쳐 다시 제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2차 조사시에는 제1차시의 문항과 응답유형을 수정 보완한 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제1차시는 강북 S부속여고 학부모(150명)와 소비자

단체에서 교육중인 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2차 조사시는 강남 B초등학교(100명), 강북 S중학교(100명) 서울소재의 S대학교(60명)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는 제2차조사시 수집된 자료중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250부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검증,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과 같다.

### 1. IMF이전과 이후의 소비수준차이

전체적인 소비수준을 보면 IMF이전의 평균소비수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50					
특 성	구 분	N (%)	특 성	구 분	N (%)
연령	20-30대	74(29.6)	부인직업 유무	유	103(41.2)
	40대	138(55.2)		무	147(58.8)
	50대이상	38(15.2)		합 계	250(100)
	합 계	250(100)			
가족수	2-3인	25(10)	남편직업	자영업	74(29.6)
	4인	138(55.2)		무직/단순노동/판매직	48(19.2)
	5인 이상	87(34.8)		관리직	58(23.2)
	합 계	250(100)		사무직	49(19.6)
				전문직	21(8.4)
		합 계	250(100)		
부인학력	중졸이하	25(10)	소득	140만원이하	64(25.6)
	고 졸	135(54)		140-200만원이하	60(20)
	전문대졸이상	90(36)		200-300만원미만	72(28.8)
	합 계	250(100)		300만원이상	54(21.6)
		합 계	250(100)		
남편학력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졸이상 합 계	13(5.2) 88(35.2) 149(59.6) 250(100)	소득변화	감 소	205(82)
				증 가	45(18)
				합 계	250(100)
	합 계	250(100)	자산수준	악 화	89(35.6)
				호 전	50(20)
				무변화	111(44.4)
		합 계	250(100)		

〈표 3〉 소비수준 평균

	IMF 이전		IMF 이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비수준	2.42	0.53	2.10	0.49

준이 2.42로서 IMF이후의 평균소비수준(2.10)과 차

이를 보였다.

〈표 4〉는 IMF이전·이후의 소비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지출 비목별로 살펴보면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비, 교육비, 광열비, 보건위생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잡비 등에서 IMF이전·이후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식료품비에서는 주식, 부식, 외식, 간

〈표 4〉 IMF이전과 이후의 비목별 소비수준

지출비목		IMF이전		IMF 이후		t-test
		M	SD	M	SD	
식료품비	주식	3.08	0.76	2.88	0.84	4.4***
	부식	3.08	0.76	2.53	0.83	12.11***
	외식	2.36	1.09	1.59	0.85	14.21***
	간식	2.90	0.87	2.28	0.89	13.55***
	합계	11.41	2.47	9.28	2.35	16.76***
주거비	집세	1.34	1.40	1.30	1.40	1.33
	주택수리	1.22	1.13	1.10	1.02	3.14***
	관리비	2.04	1.33	1.90	1.29	3.72***
	합계	4.60	2.75	4.29	2.69	4.19***
피복비	내의/양말	2.46	0.80	2.05	0.81	10.47***
	겉옷	2.77	0.87	2.08	0.83	13.11***
	구두/가방/모자	2.19	0.98	1.61	0.81	12.76***
	세탁비	2.40	0.96	2.00	0.91	10.09***
	합계	9.82	2.82	7.73	2.63	15.54***
교육비	공납금	2.48	1.39	2.49	1.42	-0.52
	학용품	2.51	0.99	2.18	0.97	8.70***
	자녀용돈	2.62	0.89	2.23	0.93	9.02***
	과외비	2.09	1.40	1.63	1.18	8.00***
	합계	9.69	3.11	8.61	2.98	10.66***
광열비	전기/수도/연료	3.05	0.81	2.83	0.87	4.99***
	합계	3.05	0.81	2.83	0.87	4.99***
보건위생비	세계	2.65	0.77	2.43	0.83	6.43***
	의약품	2.23	0.93	2.06	0.95	4.91***
	이/미용비	2.46	0.82	2.00	0.75	11.48***
	목욕비	2.29	0.98	2.06	0.97	6.44***
	합계	9.63	2.62	8.55	2.55	10.71***
교양오락비	신문/잡지	2.30	1.01	2.02	0.98	7.70***
	도서구입	2.40	1.02	2.02	0.96	8.84***
	교제비	2.31	1.13	1.98	1.06	6.79***
	문화활동비	2.01	1.17	1.49	0.88	11.94***
	합계	9.01	3.39	7.51	2.84	12.17***
교통통신비	공공교통수단	2.59	1.05	2.52	1.08	1.39
	자동차유지/수리	2.51	1.20	2.10	1.16	7.94***
	우편/전화	2.93	0.79	2.76	1.00	3.12***
	합계	8.02	2.23	7.39	2.39	5.72***
잡비	가장용돈	2.77	1.00	2.34	0.90	10.95***
	동거가족 용돈	1.65	1.35	1.34	1.13	7.88***
	부조금	2.76	0.91	2.40	0.89	8.83***
	합계	7.18	2.39	6.07	2.08	12.86***

\*p<.05 \*\*p<.01 \*\*\*p<.001

식비에서 IMF이전의 소비수준이 이후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주거비에서는 주택수리, 관리비 등에서 IMF이전이 이후보다 높았다. 주거비의 경우 유일하게 집세만이 IMF이전·이후의 차이가 없었는데 IMF 직후에는 집세가 하락하였으나 근래에는 다시 상승한 점으로 미루어 집세수준은 IMF이전·이후가 비슷해진 때문으로 보인다. 피복비에서는 내의/양말, 겹옷, 구두/가방/모자, 세탁비 등에서 IMF이전이 이후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교육비에서는 학용품, 자녀용돈, 과외비 등에서 IMF이전이 이후보다 소비수준이 높았다. 교육비에서 유일하게 공납금만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공공교육비는 IMF이후에도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는 박인숙(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전기/수도/연료 등의 광열비, 세제, 의약품, 이/미용비, 목욕비 등의 보건위생비, 신문/잡지, 도서구입, 교제비, 문화활동비 등의 교양오락비 등에서도 IMF이전이 이후보다 소비수준이 매우 높았다. 교통통신비의 자동차 유지/수리, 우편/전화 지출비목에서도 IMF이전 수준이 이후보다 높았으나 공공 교통수단이용료만이 IMF이전·이후간에 차이가 없었다. 박인숙(1999)의 공공 교통수단이용에 관한 지출은 IMF이후에도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IMF 체제하라도 활동상 필요한 공공교통요금은 감소시키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잡비에서는 가장용돈, 동거가족 용돈, 부조금 등의 IMF이전의 소비수준이 이후보다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IMF 한파가 가장의 용돈이나 미풍양속으로 정착한 부조금을 줄일 정도로 혹독했음을 나타내준다.

## 2. 소비수준 차이의 영향변인

IMF이전, 이후의 소비수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경제환경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소비수준차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비수준차이를 예측하는 변인은 소득( $\beta = 0.202$ ), 소득변화( $\beta = -0.296$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표 5> 소비수준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독립변인	소비수준차이	
	b	$\beta$
연령	-0.736	0.049
가족수	0.395	0.025
소득	1.779	0.202***
부인학력	-1.416	-0.091
남편학력	1.135	0.070
부인직업유무	-0.085	-0.004
남편직업	0.738	0.094
소득변화	-7.384	-0.296***
자산수준	-1.662	-0.125
회귀상수	9.318	
F	4.348***	
R <sup>2</sup>	0.146	
Darbin-Watson 계수	2.201	

\*p<.05 \*\*p<.01 \*\*\*p<.001

증가할수록 IMF이전, 이후의 소비수준 차이가 높았고 소득변화가 적을수록 소비수준 차이가 높았다. 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경제환경적 변인을 각기 따로 분석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였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변화가 적을수록 소비수준차이가 높게 나타난 것은 IMF라는 경제적 시련기를 맞아 소득이 높은 가계에서조차 자가용 유지비를 감소시키는 등(소비자보호원, 1998) 소비를 억제하고 연기시키면서 불안한 경기를 관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소득, 소득변화 등의 변인들은 IMF 이전, 이후의 소비수준차이의 분산을 14.6% 설명하고 있다.

## 3. 소비수준의 영향변인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IMF이후의 소비수준을 예측하는 변인은 연령( $\beta = 0.224$ ), 소득( $\beta = 0.297$ ), 자산수준( $\beta = 0.130$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산수준이 증가할수록 가계의 소비수준이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계의 소비수준이 높은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총 자산비율



〈표 6〉 IMF이후의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소비수준	
	b	$\beta$
연령	5.077	0.224***
가족수	-0.550	-0.023
소득	3.963	0.297***
부인학력	2.706	0.115
남편학력	0.162	0.007
부인직업유무	-2.921	-0.098
남편직업	0.199	0.017
소득변화	1.070	0.028
자산수준	2.605	0.130*
회귀상수	47.988	
F	9.82	
R <sup>2</sup>	0.278	
Darbin-Watson 계수	2.18	

\*p&lt;.05 \*\*p&lt;.01 \*\*\*p&lt;.001

이 다른 일반가계보다 높고(Lee와 Hanna, 1995) 자가소유 등 자산 보유의 가계가 임차 가계보다 소비지출이 높다(황덕순·정운영, 1998)는 점을 고려할 때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수준이 높은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산수준이 증가할수록 가계의 소비수준이 높은 것은 IMF하의 극도의 위기의식으로 긴축하며 경기를 관망하던 경제력의 보유자들이 점차 소비를 증가시키며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회복 기미를 뚜렷이 보이는 것으로써 지나치면 거품소비형태를 띄울 가능성도 있다(매일경제 1999년4월 28일, 5월6일자)고 하겠다. 연령, 소득, 자산수준 등은 IMF이후의 가계의 소비수준의 분산을 47.99% 설명하는 것으로써 설명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IMF체제하의 한국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그 동안 어려움을 겪던 일반가계의 경제사정도 호전되었다는 주장이 설

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산업현장이 IMF 이전의 경제수준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회복세가 일부 업종으로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취업난이 경직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가계경영자인 주부가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경제회복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회복이 가계에까지 파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IMF이전·이후의 소비수준차이와 현재의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규명해 봄으로써 IMF이후의 가계소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IMF이전·이후의 가계소비수준의 회복여부와 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주부가 인식하는 IMF이전과 이후의 가계의 소비수준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이후의 소비수준이 이전의 소비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았는데 이는 IMF이후(1999.4월 현재)의 일반가계의 소비수준이 아직도 IMF이전의 가계의 소비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거비의 집세, 교육비의 공납금, 교통통신비의 공공교통수단 이용료 등은 IMF이전과 이후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다른 요인이 작용된 결과일수도 있겠으나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 집세, 공납금, 공공교통요금 등은 경제위기동안에도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절대 필요의 비목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IMF이전·이후의 가계의 소비수준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득과 소득변화로 밝혀졌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소득변화가 없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안정된 가계일수록 IMF이후의 소비수준이 이전보다 월등히 낮았다. 이는 경제위기를 맞는 불안감으로 경제력이 있는 가계에서 소비를 크게 억제하고 경기를 관망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IMF이후(1999.4월 현재)의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연령, 소득, 자산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고 자산수준이 높으며 소득이 많은 가계일수록 소비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연령이 높고 자산수준이 높은 가계가 낮은 연령층에 비해 소비지출이 높다는 선행연구(황덕순·정운영, 1998;

Lee와 Hanna, 1995)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써 IMF 초기의 경제력이 있는 가계가 소비를 억제하며 관망 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경제력에 상응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경제력이 있는 가계는 많이 소비하고 경제력이 없는 가계는 적게 소비하는 극히 정상적인 소비형태가 확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력이 있는 가계의 다소비 또는 고소비수준이 과소비로 발전할 지에 대한 전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비록 가계의 소비는 IMF이전의 소비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경제력이 있는 가계의 다소비 현상 등 내수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예측해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일반가계의 소비수준을 IMF이전 수준으로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화폐량을 근거로 한 소비수준 측정이 아니며 연구의 대상도 일부로 한정되어 있는 제한점이 있으나 2차에 걸쳐 가계소비의 회복정도를 측정하여 그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또한 대부분의 주부들이 화폐량 이상으로 소비수준을 주관적으로 예민하게 체감하며 소비생활을 알뜰하게 하고 있음을 유념할 때 주관적인 인식을 근거로 한 측정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곽인숙 · 송유숙 · 김경애(1999). 경제적 위기가 가정 생활에 미친 영향 - IMF관리체제 전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1)
- 국어대사전(1995). 금성출판사
- 강이주(1988). 선택적 소비지출의 변동을 통한 소비 패턴의 고찰
- 김기욱 · 이승신(1990).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5-31.
- 김봉애(1983). 도시주부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1983). 장기생활설계를 위한 가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2), 59-73.
- \_\_\_\_\_ (1990). 한국가정의 가계 소비유형 분석, 소비생활연구 5, 31-40
- 김영숙 · 왕인숙(1989). 도시가계의 피복류 소비지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79, 21-39
- 도시가계연보(1998). 통계청
- 류재술(1992). 적응적 기대모형(HE)에 의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장·단기 소비합수 청, 소비자학연구 3(1): 80-95
- 매일경제(1999). 4월 13, 28일 5월 2, 6일
- 손주영 · 이연숙(1999) 도시가계의 가계자산 투자 형태 및 관련변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3)1, 67-82
- 신한경제연구소(1998). IMF시대의 생활경제, "축소균형의 모색", 신한리뷰 1998 봄호.
- 양세정(199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1970-1990년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8, 54-67.
- \_\_\_\_\_ (1997).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182.
- \_\_\_\_\_ (1998).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 대한가정학회지 36(1) 169-186.
- 양세정 · 유재은(1992). 한·일 양국의 가계소비지출 형태 비교분석,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생활연구 10호.
- 이성민(1992). 도시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형태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9(1): 53-60
- 이종성(1998). IMF이후 가계 소비생활의 변화와 특징, 소비자연구문제 21호
- 이지은 · 백은영(1998). 도시 주부의 선택적 개인소비 지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권 4호, 183-196
- 조 순(1981). 경제학원론, 법문사
- 주인숙 · 양세정(1997). 가계의 소비지출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277-290.
- 최은숙(1986).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덕순 · 정운영(1998). 주거소유형태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구조 비교분석, 소비자학 연구 9(4), 한

- 국소비자학회 1-17
- 한국은행(1998). 국민계정
-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IMF체제전후의 소비자의식 및 형태비교,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 Bellant, D. & Foster, A. C.(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2), 700-707.
- Davis, J.S(1945). Standard and Content of living, *American Economic Review* 35권 (1-15)
- Fan, J. & stafford, K.(1994). Determinants of Consumer expenditure patterns, *Consumer Interests Annual*, 40, 239-246.
- Foster, A. C.(1988). Wife's employment and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15-27.
- Friedman, M.(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M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eobel, K.P. & Hennon, C.B.(198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wife's employment status, stage in the family life cycle, meal preparation time, and expenditures for meals away from hom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63-78.
- Goldsmith(1996). *Individual and Family Resource Management*, West publishing Company
- Lee, H. & Hanna, S.(1995). Investment Portfolios and Human Wealth.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147-152.
- Magrabi, F.M.et.al(1991).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Praeger publishers, p 9
- Mammen, shelia and Whan, H. Mary(1987). *Family Conspicuous Consumption and its determinant*,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 Newton, D.L(1984). *Managerial,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managerial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Iowa state Univ.
- Strober, M.H.(1977). Wives' labor force behavior and family consumption pattern. *American Economic Review* 67(1), 410-417.